

지역 매 아 리

고창군, 메르스 대응 대책 강화

2015년 이후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고창군은 10일 '메르스 대비·대응 대책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현재 고창군에는 메르스 발생환자나 접촉자는 없으며, 군은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고창군 보건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에서는 긴급상황실에서 일일 상황점검과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고창군경찰서와 고창종합병원,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체계를 구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각종 감염질환 등에 대한 상시적 방역과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메르스 예방과 철저한 차단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창군 메르스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모든 부서가 협조하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행동요령 전파 등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메르스 대응 조치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서울시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읍시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 직원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다.

현재까지 정읍시 거주자 중 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본부서 및 의료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지역거점 병원인 정읍아산병원은 지난 10일 부터 선별진료 및 격리실에 대한 가동에 들어갔다.

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감염경로는 나타접촉, 낙타유제품 또는 메르스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평균 5일(2-14일)이다. 감염 증상으로는 주로 발열(38°C 이상)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보고회 가져

정읍시는 매년 발생하는 단풍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최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매년 가을철이면 약 60만명의 단풍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오고 있으나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위도 앞바다 부안 관할권 인정 당연”

## 권익현 부안군수, 헌법재판소 현장검증서 강력 주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의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권익현 군수는 10일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실시된 현장검증에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는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2년 전 위도 앞바다 등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는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2년 전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관할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의 현안인 위도 대리함과 인근 해상풍

력단지 조성 해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부안군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안군의원, 김진태 부안수협장,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수산관련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재판부에 대한 보고는 사인의 중요성을 감안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정송해역의 현황과 부안군 관할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정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

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고창군이 그동안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정송해역은 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유통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정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절차에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헌재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기대”

##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부안 해상경계 현장검증 실시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진행과정의 일환으로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부안군과의 해상경계의 합리적 확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진행됐다.

현장검증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침해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돼 양 지자체 간 준비사항이 몇 차례 오간 상황이다.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바다의 경

계를 확정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고창군은 연도별 국가기본도를 제시하며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

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 현장에서 현황설명을 통해 “고창군민은 청구하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으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확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적으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확정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고창군과 군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창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제15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최근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 세대와 계층 뛰어 넘는 ‘공감축제’로 자리 매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대표 문성하)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제15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최근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행사는 문화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표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을 열어주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복지시설단체 및 관련기관, 시민과 장애인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클론(강원래), 비퀴달린 성악가 이남현, 전자비이 울리스트 강명진, ▲퓨전난타팀 W&W, 인디밴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등 6팀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다.

문성하 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름

다운 행사를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음악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하나되는 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유진섭 시장은 “우리 정읍시민들은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 없는 누구하나 차별 받지 않는 다 같은 하나의 시민이며, 지금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남치노스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음악회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꿈과 희망이 더욱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농기센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태권,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35명의 읍면동 농지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농지정보 시스템과 새울 농업행정시스템을 농지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실시했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전폭을 순회하여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새울 농업행정 시스템 활용한 농지전용 신고 처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정

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관련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이다. 약 23,000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는 금년 교육을 통해 농지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처리와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經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에 앞서 전정기 농장과정은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결 처리 시에는 민원인에게 더욱 세심히 설명하고 이해·설득하여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이 농지 전문가가 되어 누수 없는 농업행정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                         |
|---------------------------|-------------------------|
|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겨 휘트 |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올림픽지 요원 지겨중 휘트          |
|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 레프팅 가이드 지겨 휘트           |
|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겨중 휘트        |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                         |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                         |